

# 충남지역 인재확보역량과 정책과제

허 문 구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요약>

### 인재가 찾아오고 머무는 지역으로 변모하려면

#### ‘수도권만 바라보는 지역인재’

바야흐로 국경과 지역을 넘어 인재전쟁·두뇌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의 확보 여부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과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나 지역의 경제구조가 기술 집약형·지식경제로의 전환과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라 고급인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인재들의 행렬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매년 비수도권 대졸자의 약 30%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특히 충남은 66%의 대졸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인재들의 수도권 빨대현상으로 충남을 포함한 많은 지방에서는 고급인력 부족과 일자리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인력수급 불일치현상(구인·구직의 미스매치)에 직면해 있다. 지방의 미래가 밝지 않은 이유다. 왜 지역인재들은 수도권만 바라보는 걸까?

#### ‘충남, 고(高)유인역량·저(低)양성역량의 역외인재 의존형’

지역이 인재를 확보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다른 지역 인재를 자석과 같이 빨아들이는 유인환경을 구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내에서 교육 및 능력개발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충남의 인재확보 종합역량(유인+양성)은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돌아 16개 광역시도 중 5위를 차지했다. 결코 나쁜 성적표는 아니다. 하지만 인재의 유인역량과 양성역량 간 불균형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외인재 유인역량은 서울,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한 반면, 역내인재 양성역량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9위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충남의 인재확보역량 유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외인재 의존형’으로 분류됐다. 충남은 지역인재의 상당수가 타 지역으로 떠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역외인재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경제성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충남이 언제까지고 지역성장을 지속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만약 충남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산업이 경기침체에 직면했다고 가정하면 과연 역외인재를 지금처럼 유인할 수 있을까?

### ‘충남이 인재를 유인·양성하려면’

본 연구의 결과, 관용성이 넘쳐흐르고 기술수준이 높은 지역이 고학력자·창의인재·R&D인재·지식기반산업인재 등의 고급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충남이 관용성 확충 방안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지역’을 지정 및 운영하고, 향후 충남의 산업발전전략과 부합하는 외국인 유입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특구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R&D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R&D인력에게 부합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유치와 기업체의 R&D기능을 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인재들은 활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즐기고, 이들 활동이 한정된 구역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하므로 직장과 거주지, 배움과 놀이가 복합된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인재들이 선호하는 직·주·학·유 일체형의 혁신지구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과 같은 역외인재 의존형은 역내인재의 효율적인 양성을 통해 인재 비교우위형으로 이동 가능하다. 충남 지역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인재의 수급상황을 사전에 감지, 대응할 수 있는 우수인재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의 위기관리 구축도 검토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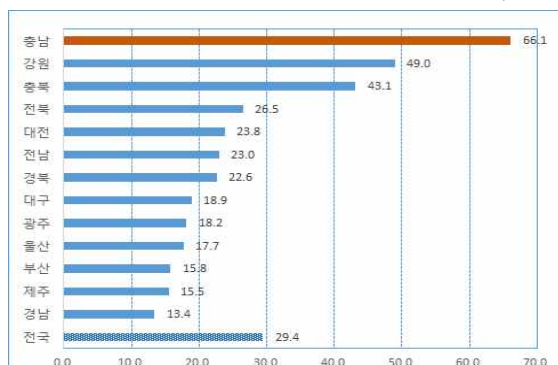
키위새는 날개가 있어도 퇴화해 날지 못한다. 굳이 날지 않아도 먹이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서식지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충남도 일자리를 찾아오는 역외인재들에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 1. 지역인재를 둘러싼 두뇌전쟁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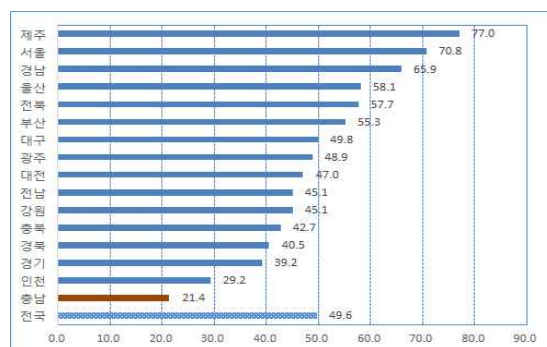
###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인재’

- 전 세계적으로 인재전쟁 또는 두뇌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생산성이 높은 인재의 확보는 국가나 지역,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 고급인력 유치를 둘러싼 인재전쟁 현상은 각국(또는 지역)의 경제구조가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 또는 지식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재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지역별 대졸자의 수도권 유출률은 충남이 66.1%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30%에 해당하는 지방의 고급인력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쏠림현상이 나타남.
- 충남지역의 대졸자 해당지역 잔존율 역시 21.4%로 전국 평균 49.6%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쳐 역내에서 양성된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반증함(인천 및 경기의 경우 각각 39.4%, 49.3%의 대졸자가 서울로 유출되어 낮은 잔존율을 보임).
- 충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됨으로써 지방에서는 고급인력 부족과 일자리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인력수급 불일치현상이 확대되고 있음.

[그림 1] 대졸자 수도권 유출률(2013년)  
단위 : %



[그림 2] 대졸자 잔존율(2013년)  
단위 : %



자료 : 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토대로 작성.

### ‘인재는 지역성장 동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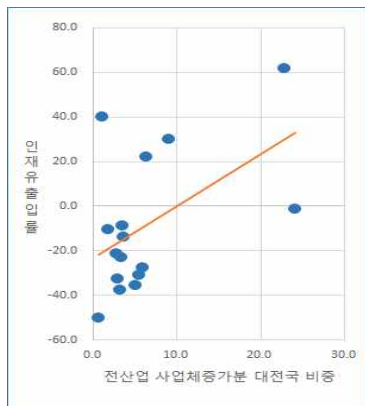
- 지역이 인재를 유입 및 양성에 진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급인력이 지역성장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임.
- 기업은 인재의 유입 및 양성 환경이 구비된 지역에 입지하기를 원하고 고기술수준을 요구하거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나타남.

- . 인재가 집적된 지역에 기업이 입지하는 것에 의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통해 소득수준이 증대하는 지역경제 선순환과정을 형성함.
- . 즉, 우리나라 시도 단위에서 인재유출입률과 사업체 증가, 고용률, 취업자 1인당 GRDP 간에는 명확한 정의 비례관계가 관찰됨.
- . 이 같은 논의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사실은 기업투자와 고용 창출, 지역성장의 시발점은 인재 확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그림 3] 인재와 기업입지·고용·지역성장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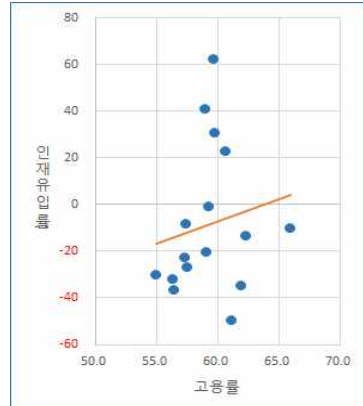
[A] 인재와 기업입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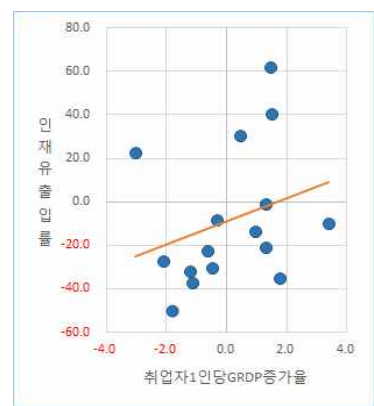
[B] 인재와 고용

단위 : %



[C] 인재와 지역성장

단위 : %



주 : 인재유출입률은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타 지역 대졸자 유입 - 해당지역 대졸자 유출) / 해당지역 대졸자의 산식을 통해 산출

자료 : 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및 통계청, KOSIS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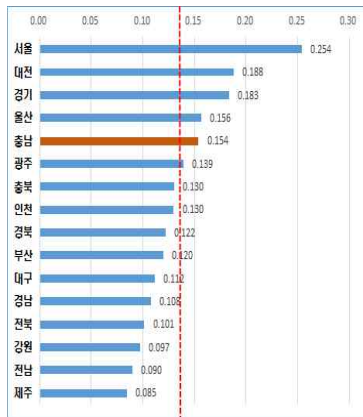
## 2. 충남지역 인재확보역량

### ‘인재확보 종합역량 전국 5위’

- . **(인재확보 종합역량)** 서울의 지수가 0.254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충남의 지수는 0.154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여 전국 5위를 차지함.
- . 최고지역인 서울과 최하위지역인 제주 간의 종합역량은 약 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역 간에는 큰 편차가 존재하여 인재 쏠림현상을 반증하고 있음.
- . **(역외인재 유인역량)** 종합역량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지수가 0.180으로 다른 지역과 큰 차이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충남(0.116)은 경기(0.119)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함.
- . **(역내인재 양성역량)**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가 상위권을 독점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충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국 9위에 머물고 있음.

[그림 5] 충남지역 인재확보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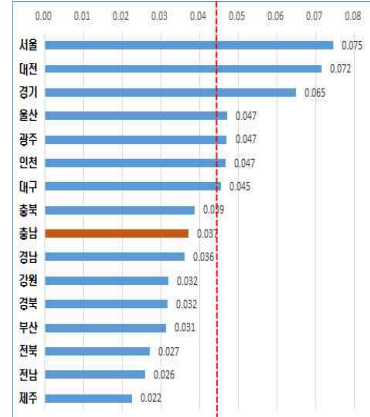
[A] 인재확보 종합역량



[B] 역외인재 유인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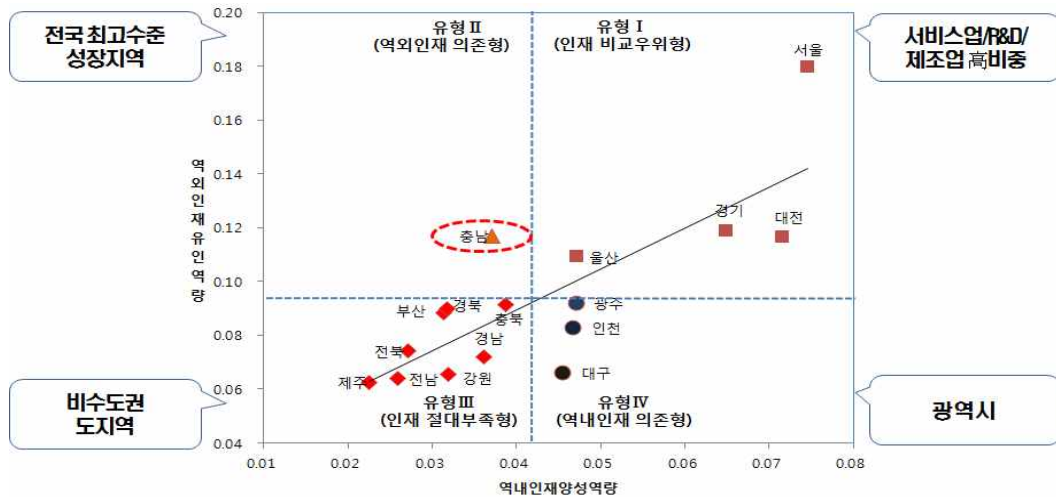
[C] 역내인재 양성역량



### ‘지역인재 떠나지만 외부에서 더 많이 유입되는 역외인재 의존형’

- (유형Ⅰ : 인재 비교우위형) 인재의 유인 및 양성 역량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유형으로 서울, 대전, 경기, 울산 등 종합지수 1-4위를 차지한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제조업, R&D역량을 나타내는 특성을 보임.
- (유형Ⅱ : 역외인재 의존형) 유인역량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양성역량은 하회하는 유형으로 충남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전국 최고수준의 성장지역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역외인재를 유인하고 있음을 보여줌.
-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3년 기간의 지역내총생산(GRDP) 연평균증가율은 9.2%로 전국 평균 5.3%를 1.7배나 상회하여 전국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유형Ⅲ : 인재 절대부족형) 인재의 유인 및 양성 지수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도는 유형으로 16개 시도 중 절반인 8개 지역이 포함되어 상당수의 지역이 인재의 유인 및 양성 역량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 이들 중 부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수도권의 도(道)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유형Ⅲ과 유형Ⅰ의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유형Ⅳ : 역내인재 의존형) 양성지수는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으나 유인지수는 밑도는 유형으로 모두 광역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임.
- 그러나 동 유형에 속하는 지역들이 우수 인력을 양성하여도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역내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유형Ⅰ 또는 유형Ⅱ와 같은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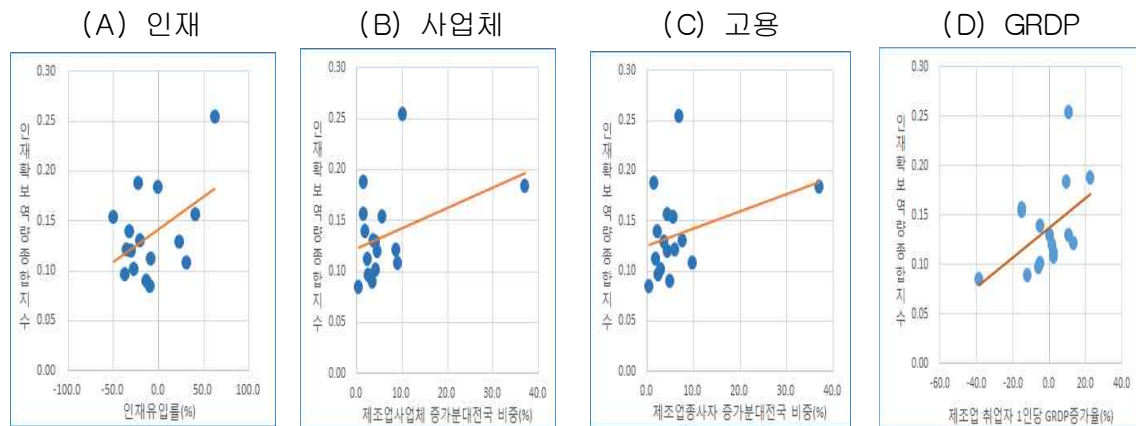
[그림 6] 인재확보역량 지역유형



### ‘지수와 인재·경제적 성과, 유형별 인재와 2T 간 상관관계 높아’

- 인재확보역량 종합지수와 인재 및 경제적 성과 간의 상관성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인재 집적 → 기업투자 증대 → 고용 창출 → 생산성 제고의 지역경제 순환과정에 기여함을 의미하고 있음.

<그림 10> 인재확보역량 종합지수와 인재·경제적 성과 간 관계



주 : 상대적으로 인재 비중이 높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수와 경제적 성과를 분석

- 각 유형별 인재와 종합지수 간, 부문별 지수 간에는 높은 상관성을 보이나, 특히 2T(Tolerance & Technology)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임.
- 가중치 선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관용성에 대한 중요도가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인재는 관용성이 넘쳐흐르는 지역을 선호하는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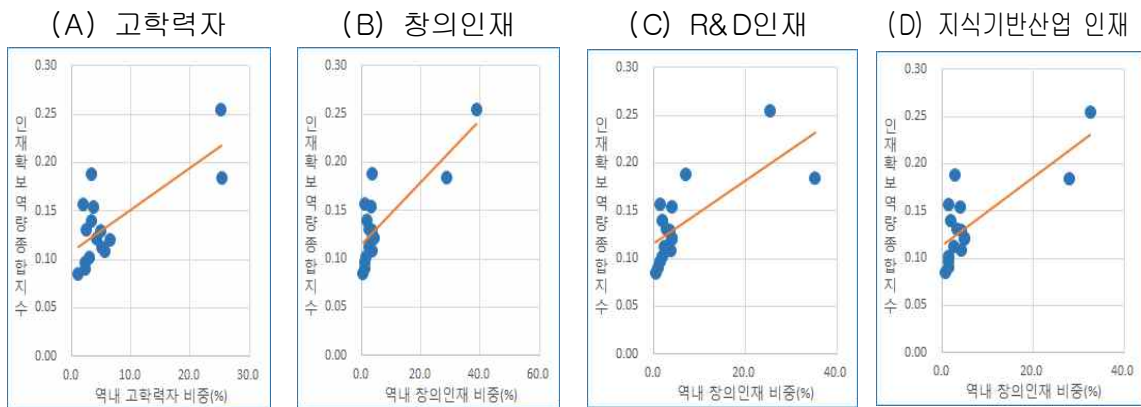
. 이는 인재의 유인 및 양성을 통한 인재 확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개방성 및 다양성을 포함하는 관용성 부문을 향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임.

< 표 2> 유형별 인재와 종합지수 간 상관관계

|                 | 고학력자                | 창의인재                | R&D인재               | 지식기반산업 인재           |
|-----------------|---------------------|---------------------|---------------------|---------------------|
| 인재 확보역량<br>종합지수 | 0.736***<br>(0.001) | 0.798***<br>(0.000) | 0.730***<br>(0.001) | 0.779***<br>(0.000) |

주 : \*\*, \*\*\*는 5%, 1% 범위에서의 유의수준을, 괄호 안은 유의확률(p-value)을 나타냄.

< 그림 11> 유형별 인재와 종합지수 간 관계



< 표 3> 유형별 인재와 일자리·2T 간 상관관계

|     | 고학력자                | 창의인재                | R&D인재               | 지식기반산업 인재           |
|-----|---------------------|---------------------|---------------------|---------------------|
| 일자리 | 0.675***<br>(0.004) | 0.727***<br>(0.001) | 0.676***<br>(0.004) | 0.721***<br>(0.002) |
| 2T  | 0.811***<br>(0.000) | 0.884***<br>(0.000) | 0.764***<br>(0.001) | 0.852***<br>(0.000) |
| 관용성 | 0.715***<br>(0.002) | 0.723***<br>(0.002) | 0.690***<br>(0.003) | 0.734***<br>(0.001) |
| 기술  | 0.697***<br>(0.003) | 0.790***<br>(0.000) | 0.649***<br>(0.007) | 0.742***<br>(0.001) |

주 1) : \*\*, \*\*\*는 5%, 1% 범위에서의 유의수준을, 괄호 안은 유의확률(p-value)을 나타냄.

주 2) : 일자리 및 2T의 상세 지표는 <참고자료 1>을 참조

### 3. 충남지역이 인재를 유인하고 양성하려면?

#### ‘관용성 확충 및 기술수준 향상’

.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M자 곡선 시정) 관용성 확충을 위해서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려면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통한 M자 곡선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충남은 경단녀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위해 특정 구역을 ‘경단녀 경제활동 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단녀에 대해 촉진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일정 범위(예컨대, 신규채용의 5~10%) 내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음.
- .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동 방안은 국내의 한정된 인재를 둘러싼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을 해소할 수 있으며 충남지역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 향후 충남지역 차원의 산업발전전략과 부합하는 외국인 유입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특구 신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최근 정부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많은 분야에 대해 규제완화 및 재정적 지원을 도모하는 규제프리존을 활용하여 사업 이외 사람(외국인 인재) 중심의 특구 신설도 가능함.
- . **(R&D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수준 향상)** 지역에서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면 산업구조 고도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원천인 혁신활동 강화가 주요 요소임.
- . 충남지역이 R&D역량을 강화하려면 R&D인력에게 부합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유치와 기업체 R&D기능을 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임.
- . 충남지역 소재 기업의 R&D지원을 위한 거점으로서 R&D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해외 R&D기관과의 협력적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혁신지구 조성과 유형별 인재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 . **(혁신지구 조성, Innovation District)** 역외로부터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선호하는 직·주·학·유 일체형의 혁신지구 조성이 전제되어야 함.
- . 인재는 동종업종 전문가 간의 접촉보다 다양성과 개방성이 넘치는 환경을 선호하며, 이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만남으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함.
- . 인재들은 활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즐기고, 이들 활동이 한정된 도시 중심부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하므로 직장과 거주지, 배움과 놀이가 복합된 환경조성이 요구됨.
- . **(지역산업 장기발전과 연계한 역내인재 양성)** 충남과 같은 역외인재 의존형은 역내인재의 효율적인 양성을 통해 인재 비교우위형으로 이동 가능함.
- . 충남 지역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인재의 수급상황을 사전에 감지,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특히, 역외인재 의존형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재를 유인하는 역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미래유망산업 육성 등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
- . 충남지역의 미래를 고려한 인재양성을 위해 우수인재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의 위기관리 구축이 요구됨.

- 유형별 인재의 위기를 예고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을 통해 특정 시점에서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진단하고 이를 반영한 인재양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시에는 충남의 지역산업 및 R&D 발전로드맵과 연계하여 향후 10-20년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참고자료 1> 인재확보역량지수 지표체계

|        | 부문   |     | 키워드    | 개별지표                               | 출처                 |
|--------|------|-----|--------|------------------------------------|--------------------|
| 인재유인환경 | 일자리  |     | 고용안정성  | 총취업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2014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
|        |      |     | 임금수준   | 전산업 상용근로자 평균임금(2014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
|        |      |     | 근로시간   | 전산업 상용근로자 평균노동시간(2014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
|        |      |     | 좋은 일자리 | 총사업체 대비 고정장기업 비중(2013년)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        |      |     | 청년고용   | 15~29세 고용률(2014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 2T기술 | 관용성 | 개방성    |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13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      |     |        |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2013년)               | 통계청, KOSIS         |
|        |      | 다양성 |        | 총사업체 대비 ICT사업체 비중(2012년)           | 미래창조과학부, ICT산업통계   |
|        |      |     |        | 산업다양성지수(2012년)                     | 산업연구원, 내부자료        |
|        |      | 기술  | 창조     | 제조업 총사업체 대비 창조제조업 사업체 비중(2012년)    | 통계청, 광공업조사보고서      |
|        |      |     |        | 제조업 총취업자 대비 창조제조업 취업자 비중(2012년)    | 통계청, 광공업조사보고서      |
|        |      |     | 서비스업   | 서비스 총사업체 대비 창조서비스업 비중(2012년)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보고서     |
|        |      |     |        | 제조업 총취업자 대비 창조서비스업 취업자 비중(2012년)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보고서     |
|        | 어메니티 | 교육  |        | (인구당+면적당) 대학교원수(2014년)             | 통계청, KOSIS         |
|        |      |     |        | (인구당+면적당) 사설학원 수(2013년)            | 통계청, KOSIS         |
|        |      |     |        | (인구당+면적당) 전문대/대학 수(2014년)          | 통계청, KOSIS         |
|        |      | 문화  |        | (인구당+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수(2013년)          | 통계청, KOSIS         |
|        |      |     |        | (인구당+면적당) 사회복지시설 수(2012년)          | 통계청, KOSIS         |
|        |      |     |        | (인구당+면적당) 의료기관 병상 수(2012년)         | 통계청, KOSIS         |
| 인재양성환경 | 능력개발 |     |        | (인구당+면적당) 범죄발생건수(2013년)            | 통계청, KOSIS         |
|        |      |     |        |                                    |                    |
|        |      |     |        |                                    |                    |
|        |      |     |        |                                    |                    |
|        | 혁신   |     |        | 영재교육 고교생 대비 영재교육대상자 비중(2013년)      | 한국교육개발원, 국가영재교육통계  |
|        |      |     |        | 인구당 석·박사 재학생 수(2013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        |      |     |        | 총인구 대비 교육훈련 학습자 비중(2013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        |      |     |        | 평생교육기관 대비 지식인력기관 비중(2013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        | 학습효과 |     |        | R&D지출 GRDP 대비 R&D 투자 비중(2013년)     | 통계청, 연구개발활동조사      |
|        |      |     |        | R&D인력 인구당 R&D 인력 수(2012년)          | 통계청, 연구개발활동조사      |
|        |      |     |        | R&D기관 인구당 R&D기관 수(2012년)           | 통계청, 연구개발활동조사      |
|        |      |     |        | 특허 인구당 특허건수(2012년)                 | 통계청, 연구개발활동조사      |
|        |      |     |        | 교육효과 지식/기술 습득효과(2013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        |      |     |        | 숙련인력 총취업자 대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비중(2013년)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통계 |
|        |      |     |        | 맞춤형교육 구인배수(=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인원, 2013년)  | 통계청, KOSIS         |
|        |      |     |        | 취업률 지역소재 대졸자 정규직 취업률(2009년)        | 통계청, KOSIS         |
|        |      |     |        |                                    |                    |

자료: 산업연구원

<참고자료 2> 환경별·부문별 가중치

| 환경별          | 가중치   | 6대 부문 | 가중치   |
|--------------|-------|-------|-------|
| 역외인재 유인환경    | 0.621 | 일자리   | 0.470 |
|              |       | 2T    | 0.193 |
|              |       | 어메니티  | 0.336 |
| 역내인재<br>양성환경 | 0.379 | 능력개발  | 0.315 |
|              |       | 혁신    | 0.375 |
|              |       | 학습효과  | 0.310 |

주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을 위해 도시·지역경제 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가중치를 설정하였음. 개별지표 지수 산출은 개별지표 표준화 값×(부문별 가중치/n(개별지표 수))의 산식을 통해 산출함.